

월간 범어교회보 Vol. 430

늘 푸른 숲

2025. 4

소외된 자와 함께 걷는 사순절

죽을만큼 힘든 순종에서 '포도주'로!

나의 깨어진 옥합, '나는 찬양하리라'

엄마 아빠, 우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박광우 목사 인터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로'



죽음 그리고 삶 그안에 '순종'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작지만 강한 교회



이지훈 담임목사

미국의 유명한 교회 상담가 캐논 켈러한이 쓴 책 중에 <작지만 강한 교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의 건강함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세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동화되는 것도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이 좋은 봄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을 열며

푸르고 싱그러운 봄의 한 가운데에 있다.
초록의 풍성함이 더해가고,
길가의 이름 없는 들꽃의 자태가
신비롭기까지 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꽃꽃, 나태주 作〉

내가 좋아하는 시이다. 아무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자세히 오래 보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우리가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지나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한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깨달음의 시이기도 하다.

보통의 우리는 자세하고 오래 보아야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를 어떻게 읽으실까? 우리를 자세하고, 오래 보아야만 사랑하실까?

자세하고 오래 보시면 보실수록 실망과 한숨뿐이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생각만 하셔도, 순식간에 사랑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인간의 언어와 사유, 신학적인 이론과 방법으로도 이 사랑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다가갈 뿐이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아이러니. 그 신비의 비밀을 알기에, 내 자신에 실망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 혼자 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잘 나서, 이뻐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푸르른 4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8절)

• 이동원 집사(바울청년회)



2025 April | Vol. 430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4월을 열며 _ 이동원 집사
- 05 목차
- 06 절기 |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_ 최상용 강도사
- 08 절기 | 나의 사순절 순례 _ 배지연 집사
- 10 행사 | 성경적 연애 & 결혼 준비 _ 김수연 목사
- 12 행사 | 죽을 만큼 힘든 순종이... _ 김태현 청년
- 13 행사 |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_ 김지영 청년
- 14 내 영혼의 찬양 | 나의 깨어진 옥합 “나는 찬양하리라” _ 김상한 집사
- 16 나의 한 구절 _ 김종숙 집사
- 18 주일학교 | 유치부 | 엄마 아빠, 우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_ 우대현 집사
- 20 행사 |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 된 안수집사회 수련회 _ 김대진 집사
- 22 공감의 장 |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_ 중등부
- 24 인터뷰 |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원케 하는 목회자로!(박광우 목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3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등정 / 행사 안내

제430호 | 발행일 2025년 4월 6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이영규 | 2025년 교회 표어 “아름다운 동행”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성품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내에는 고난과 인내를 통한 신앙 성장보다는 마음의 위로와 같은 감성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3세기 초까지는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켜지다가, 그레고리 황제 때부터는 40일간 고기를 금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을 성금요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이 죄인임과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의미로 실제 재를 뒤집어썼지만, 이 의식은 동방정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 교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슬픔을 의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처절하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부활의 통로가 되었고, 온누리에 퍼질 기쁜 소식의 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금식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
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
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
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
느냐.’(이사야 58:6-7)



우리는 2025년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
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
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면 가족
들과 함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 기
뻐하시는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
시기를 소망합니다.

• 최상용 강도사



우리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온유를 보여 주소서.

말로는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뇌지만
이 진리가 제 마음 중심에
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저항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_ 헨리 나우웬

나의 사순절 순례

기독교력으로 사순절(Lent, 예수 부활 전 40일간) 기간이다. 흠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재의 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 40일의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를 회심하고 결단한다. 이 세상이 유한한 인간의 임시 처소임을 깨닫고, 인생과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험벗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고난조차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순례길.

고백하자면, 수십 년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사순절을 그저 절기로 여기며 의례적으로 지나왔다. 종려주일에서 성금요일, 부활절로 이어지는 마지막 한 주를 금식이나 기도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며 보냈지만, 사순절 40일을 온전히 순례하듯이 지내온 건 작년 사순절이 처음인 듯하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사느라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탓이다. 재작년 늦가을 즈음, 기독교 대학에 교수 임용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제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것임을 발견했다. 임용되지는 못했으나,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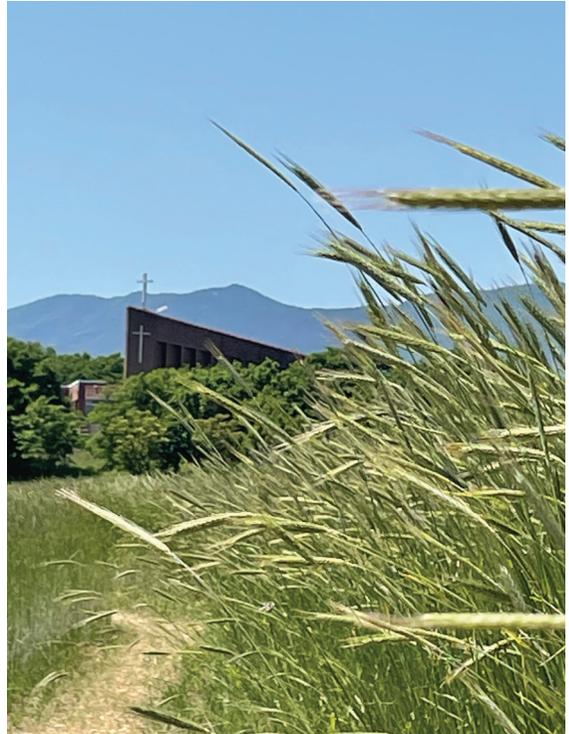
그 무렵 나는 일터에서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던 중이었다.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동료 앞에서 당황했고, 혹시나 내게 문제가 있나 싶어 자기 속으로 침잠했다. 죽은 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던 단테처럼, 어두운 숲속에서 서성이며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와 맥락들과 마주했다.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대답 사이를 헤매다 보니,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일상이 뒤엉켜졌다. 한없이 가볍고 나약한 인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그분의 은혜가 필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평안을 줄 그분 앞에 서는 일뿐이었다. 그때가 2월, ‘재의 수요일’ 즈음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순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묵상을 하며,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었다. 출근하는 날이면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짧게나마 기도했다. 마치 도피처와 같이, 그곳에 가면 살만했고, 그렇게 하루를 건디듯 보냈다. 매일을 사순절의 하루, 순례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애썼다. 만나는 사람과 풍경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여기며 그 뜻을 살펴보았다.

어떤 날은 내 강의를 들었던 졸업생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 몸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는 학부 수석 졸업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힘들다고 했지만, 활짝 웃었고 씩씩했다. 배웅하며 돌아오면서 그의 하루를 생각했다. 근육이 굳어 필기를 빨리할 수 없는 그는 누군가가 제공하는 강의록을 다시 옮겨 쓰며 하루를 복기한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는 그의 하루야말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휠체어를 모느라 인간힘을 쓸 그를 떠올리며, 나의 인간힘은 뭘 하느라 쏟고 있는지 생각했다.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관계 등에 매몰되어 스스로 괴롭히고 사는 게 아닌가. 이튿날, 하루 순례를 시작하며 학교의 성소에 도착했다. 기도하는 중에 깊이 침잠하는 나를 깨닫는다. 얼마 만인가, 이런 깊이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과 회개의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을 잃고 살았다는 깨달음도.

교회에서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드넓은 호밀밭을 지난다. 바람에 호밀들이 사그락거리며 흔들리는 소리. 문득 예전에 읽었던 『호밀밭의 파수꾼』이 떠올랐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주인공의 독백과 함께 그 당시 내가 품었던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때 나는 커서 외로운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랐다.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지는 못했지만,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온기 어린 마음 한쪽을 내주고자 했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러했다. 어릴 때 품었던 어떤 소망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루었고, 늘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지난 사순절, 순례하듯 연구소와 학교를 오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풍경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교수님들도 곁에 있다. 나를 향해 적의를 표하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빚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 같은 이들에게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신다. 아직도 나의 사순절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적의에 찬 이를 만나고, 숨을 쉬기 위해 성소를 찾는 일상이 계속된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 매일을 순례하듯 살아가라는,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분의 뜻일지도.

•배지연 집사(교회보팀)



‘성경적 연애 & 결혼 준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며 산과 들에, 또 길 거리에 있는 나무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게는 이 시기만 되면 또 다른 새싹이 저마다의 마음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들이 움트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봄이 오는 이 시기에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흔한 표현이 된 ‘썸’이라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플러팅’까지도 스스럼없는 청년들과 연애와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고 싶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연애와 결혼에 관한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 용납된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감정만 불타다 끝이 나버리는 사랑, 나의 힘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끝나버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연애 & 결혼 준비



강사
심리학하는 교호언니 **웹시바**
유튜브 4.8만 구독자들의 크리스천 연애 결혼 멘토
서강대 경영학과-심리학과 졸업
"심리학하는 교호언니 웹시바의 연애 상담"
[두란노 출판] 저자

시간 : 3월 23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갈릴리패들 (지하 층)
문의 : 청년부 교역자 & 임원





좋은 사람의 조건과 우선순위를 나열하며, 더 좋은 사람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욱 애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 안에 사랑과 연애,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김수연 목사(청년1부)



죽을 만큼 힘든 순종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포도주’가 되는!

안녕하십니까? 범어교회 청년2부 36대 김태현입니다. 오래된 연인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우연히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엔 “많은 청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결혼 소식을 전해올 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부랴부랴 준비할 땐 저 또한 ‘식’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결혼이란 무엇인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헵시바님의 특강에서도 이성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성과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결국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없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통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헵시바님의 특강을 들으며 때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다움을 계속 주장하며 다투었지만, 결국 서로가 노력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현재에 이르게 된 아내와의 관계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라” 유튜브 헵시바님께서 이번 특강 때 하셨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특별함이 아니라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로서 마주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내용으로 와닿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선 사랑이라고 불리는 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가득하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물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죽을 만큼 힘든 그 순종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포도주’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새벽이슬 청년부가 되길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 김태현 청년(청년2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2주 전 실제 결혼식에서 식권이 모자랄까 봐 걱정하고 기도하다 무사히 신혼이 된 청년입니다. 결혼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의 혼인 잔치’ 말씀을 듣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특강에서는 유튜브와 다르게 개별사례보다는 연애, 결혼을 비롯한 인생의 신앙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험시바 유튜브님께서 말씀해주셨듯, 연애뿐만 아니라, 취업, 직장 적응, 관계에서 주기적으로 포도주가 부족한 현상,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는 순간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유교적 순종으로 따르는 듯하나 억울함을 놓지 못하기도 했고, 또 불교적 순종처럼 행동 없이 자신에 갇힌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동안 왜 그랬을까 하는 순간과 그리고 여전히 온전치 못해 주님의 공활에 힘입은 순간들 때문에 글을 쓰면서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순간들, 신앙에서도 행위로 인정받고자 본인과 연인에게 채찍질하고 아파했던 순간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옳은가 고민했던 순간 등 지나온 시간에서 하나님은 물론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처럼, 자존심도 상하고 고난도 겪었지만, 부활의 기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물항아리에 물부터 채우라고 하신 건 순종, 믿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삶에서 먼저 기쁨이 넘치고 나면 그때부터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하고 순서를 바꾸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분을 우선하고 싶다’는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떠올린 마음은 물항아리를 채우는 하인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며 때로는 땀방울을 흘리고, 어떤 때는 군시령거리며 물항아리를 채웠던 순간 함께했던 동역자분들이 소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과 여러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 저의 부족함과 제가 배워야 하는 배려와 결혼에 대한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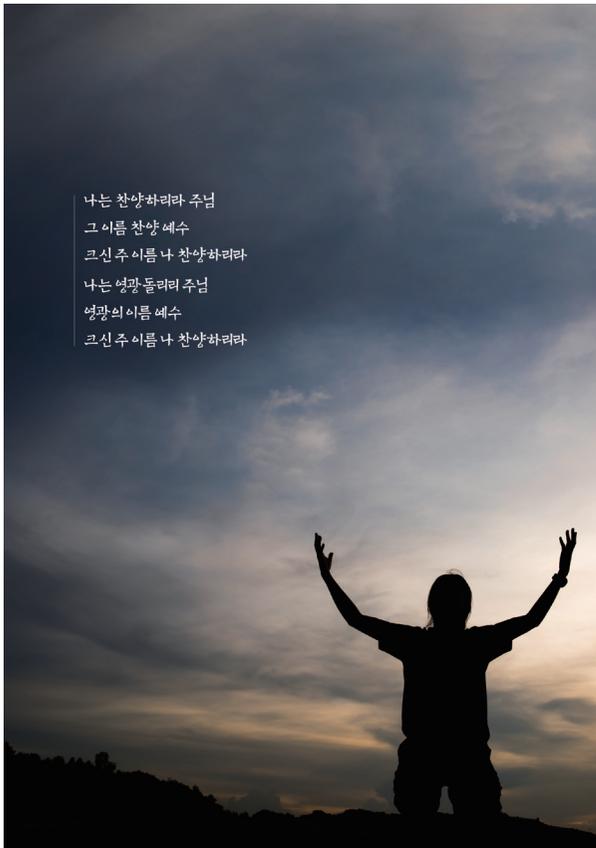
갈 길이 멀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혼인 잔치를 함께 채우는 문화 안에서 연약한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돌려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김지영 청년(청년2부)



나의 깨어진 옥합 “나는 찬양하리라”

사방에서 들리는 거친 물소리, 우는 바람 소리가 시골의 적막을 휘저으면 어린아이는 귀를 막고 이불 속에 자신을 꽂고 숨었다. 남달리 소리에 민감했던 그 아이는 가끔 울리는 종소리에도 두려움에 종일 다락문을 닫고 닫으며 숨어 있었다. 또래라곤 없던 시골에서 그 아이의 친구는 강아지였고 들고양이였고 이름 모를 들풀이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눈을 마주치면 그의 외로움은 멀찍이 총총하며 사라지곤 했었다. 어느 날, 그 깊은 시골의 한집에 교회라는 간판이 올려졌다. 고단한 삶의 생채기에 지친 그의 모친은 교회라는 곳에서 쉬를 얻기를 원했고 전심으로 섬겼다. 성실하고 예쁜 아들이었던 그도 그 교회에서 주문 같은 기도문을 외우고 예식의 절차였던 절하는 방식과 예물을 올리는 형식을 익혔고, 자면서도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성실히 체득하여 모두의 본이 되었다. 모친은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고, 그 교회의 본류인 일본에 유학을 보내리라 결심하였다. 그렇게 그는 순종적인 아들이자 그 교회의 기대주로 잘 자랐다. 반듯했던 그의 유년기의 유일한 구김은 그 교회가 “천리교”라는 일본종교의 지부였다는 것이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저를 한걸음 뒤에서 돌아보니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낮은 학창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은 목회자인 한 친구를 따라 한 번 가 본 개신교 교회에서 이 낮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성도가 수십 명인 조그만 교회였는데 아마도 금요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배에 혼란스러워할 때 본당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가사가 뜨며 잔잔히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의 압도되는 강렬함이 손에 만져지는 듯 또렷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라는 곡의 모든 가사가 저의 내면을 훑고 지나가며 심장이 터질 듯이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광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저의 무릎이 낮아지며 마음은 찬양의 기대로 가득하더니 이내 이 가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대학에 가고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유난히 당차서 좀체 지지를 았던 그 친구가 눈에 거슬리더니 이내 온 마음에 담겼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니던 몇 해 끝에 교회에서 만나자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전해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8년을 만난 후, 결혼을 두 달 앞두고서 극진한 불교 신자인 형님네의 주도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내쫓겼습니다. 모든 과정에 발목이 잡혔고, 물리적 위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영적 핍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치이면서 ‘예수쟁이 집에 못 빼앗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와 아내의 체중이 20킬로씩 주는 전쟁 같은 결혼을 감내하시는 장모님의 인내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또 모욕당하신 어느 날,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시키지 마세요. 제가 놓겠습니다” 긴 한숨 끝에 장모님의 “그래 상한아, 너는 우리 집에 사위로 오지 말자, 이제 내 아들로 오너라”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믿음 없는 집안에서 뿌리 뽑혀져 믿음의 집안으로 깊게 심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믿는 이의 본을 보여주는 아내의 지혜와 현명함 덕분에 본가와 화목하게 왕래하고 있으니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넘칩니다.



이런 제가 어찌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소음에 귀를 막고 문을 닫고 닫았던 저를 아프게 건지시고 깨트리신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인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찬양을 들었던 그 순간에, 저는 이미 깨어진 옥합이었습니다.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때 저를 만지시고 깨트리시며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깨닫습니다. 범어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나 찬양대원으로 단 위에 서서 저의 미약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것뿐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주께만 드리지게 하소서”

• 김상한 집사(예사모)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그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 헨리 나우웬」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누군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 내게 필요한 건 내게 주신 의지로 주를 고백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고백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 김종숙 집사(예사모)

엄마 아빠, 우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낮선 유치부실 앞에서 엄마 손을 놓자마자 서럽게 울었던 연초의 첫 시간이 지나고 몇 달 사이 부쩍 의젓하게 자란 모습을 부모님께 선보이는 날이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얼굴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배어 나와 훨씬 반짝였다.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한걸음 내딛은, 엄마 품을 떠나 스스로 예배드리게 된 우리 아이들을 보러 오신 부모님의 얼굴에도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채워진 유치부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고, 아이들도 예배 시간 내내 연신 부모님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신나게 예배드렸다. 목소리도 훨씬 우렁차고 집중력도 최고로 발휘되었으며, 보석 같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일마다 아이를 유치부 예배에 데려다주고 아내와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이와 함께 예배드렸던 영아부 때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유치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 가족이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너무 좋으시대~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대~”♪

예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찬양 소리와 가사가 들려오는데 큰 은혜가 되면서, 정말 이 귀한 아이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과 율동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봐도 이토록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 조용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설교 말씀 후 공과 활동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애써주시고,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까? 부모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누구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학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주일학교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아이들을 위해 말씀 준비와 기도해주시는 전도사님, 찬양과 반주, 사진으로 남겨주시는 선생님, 각 반에서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해주시는 모든 범어교회 유치부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귀한 예교 친구들 ♡



• 우대현 집사(베드로청년회)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 된 안수집사회 수련회

성경 속 집사들의 사역을 보면, 집사의 역할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렸습니다(사도행전 6-8장). 이처럼 집사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안수집사님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안수집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3월 15일 토요일 평산아카데미에서 진행하였고, 협동안수집사님들과 이레안수집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실천이라고 하여도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섬김과 봉사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특강을 통해 QT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여러 교재를 통해 깊이 있게 말씀을 읽는 방법들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집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기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며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윤영희 집사님이 신작 '윌버포스'를 주제로 저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윤 집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부조리함을 바꾸고 개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이 말씀처럼, 집사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배움뿐만 아니라 미니 운동회를 통해 팀별로 다양한 게임을 하며 하나 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4팀으로 나눠 진행한 운동회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 각 팀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함께 뛰고 웃으며 친밀함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안수집사님과 이래 안수집사님들을 포함해 안수집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도서 4:9)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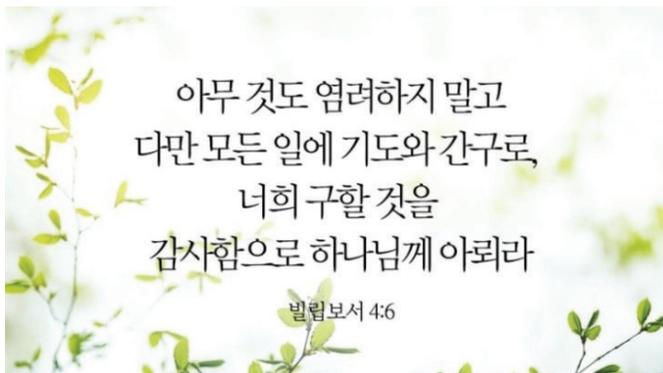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다짐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동역하는 범어교회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수고하신 안수집사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김대진 집사(안수집사회 부서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중등부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감사 제목을 소개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애쓰는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저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모두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중등부 1학년 강규리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중등부 1학년 심재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 입으로 말해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3학년 금해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에서 후원하는 구미 아이꿈터 아이들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해주세요. 매주 예배를 통해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중등부 1학년 김은유

하나님 한 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걸음에 함께하게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며 같이 나아가는 동역자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해주세요.

중등부 2학년 최은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함 때문에 저와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 있도록해주세요.

중등부 2학년 이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원케 하는 목회자로!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박광우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목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A. 고향이 경산이라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경산초등학교를 다녔고, 4학년 때 범어동으로 이사 와서 범어초등학교로 전학했죠. 보통 아이들처럼 즐겁고 신나게 보냈습니다. 특히 쥐볼놀이와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하루하루 딱지치기를 하면서 딱지를 많이 따면 기분이 정말 좋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 종이 딱지가 뭐라고 그렇게 신났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쥐볼놀이를 하다가 옷에 구멍도 내고, 손등에 불똥이 떨어져 흉터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때의 흔적을 돌이켜 보면 꼭 하나님께서 저를 인치신 흔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로는 누나 한 명과 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 3남매예요. 지금은 다 결혼해서 누나는 서울에, 동생은 경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교회 생활이 궁금합니다.

A.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고신측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결혼 후 경산으로 오시면서 경산교회로 옮기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아버지와 결혼 후 교회로 오셨죠. 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경산교회가 모교회였고, 부모님은 지금도 거기 다니세요. 대구로 이사 온 뒤 초등학교 4학년부서는 대동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다시 경산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교회 생활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셔서 주일에 교회를 결석하거나 돈을 쓰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지겹고 괴로웠습니다. 주일엔 TV도 못 봤고, 대학교 때까지 그랬죠. 겉으로는 착한 주일학교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신앙이 숨 막히는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와 목사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신 분들은?

A.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중3 때 주안산 기도원에서였어요. 아버지께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시편 27편 말씀을 들으며 거짓말하고 미워했던 제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진짜 깊은 만남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1996년 여름, 영남대 ivf(한국기독교학생회)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고 TV도 안 보며 나름 괜찮은 사람

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 가족과 싸우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제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의 '죄인 중 괴수'라는 고백이 딱 제 얘기 같았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울었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말씀이 너무 사모해져서 차 타고 오가며 옥한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영남대학교 근처 성광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며 신앙서적도 읽었죠. 예전에는 옥한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같은 큰 교회 목사님을 닮고 싶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들의 목회 철학, 설교, 인격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장점이 보이니까, 그분들을 관찰하며 "이건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Q.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언제였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으며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 소그룹 모임과 기도회, 큐티 나눔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교회에선 제약이 많아서 고민이 됐죠. 졸업 전 신학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아내가 반대했어요. 군대를 다녀와 결혼 후에도 그 마음을 내려놓았었죠. 그러다 2003년 여름, 선교단체 수련회를 섬기러 갔다가 "네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아내와 소백산기도원에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향한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아내도 인정해 줬어요. 그해 4개월 준비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짧은 시간에 합격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첫 사역지는 2005년 내일교회였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 7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위해 서원기도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예요.



Q. 목회자로서 평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A. 예전에는 설교를 잘하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받고, 멋있다고 인정받는 목회자를 꿈꿨어요. 근데 범어교회에 온 뒤, 특히 최근 2~3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목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원케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Q.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A. 3~4주 전, 제 아들 주용이가 경대 치과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잘 받은 거예요. 장애가 있는 주용이는 치과 치료가 쉽지 않아요. 치료가 어려우면 전신마취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가 잘 되고, 주용이가 협조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잘 뽑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용이가 속한 고등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 덕에 한 시간 넘게 걸렸지만, 전신마취 없이 발치를 마무리했어요. 주용이가 잘 참아줘서 정말 감사했죠.

Q.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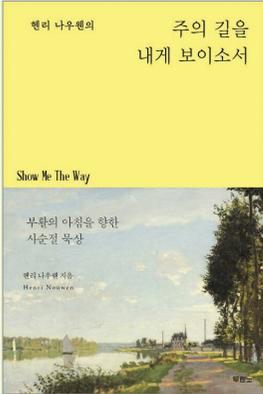
A.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범어의 모든 가족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리고 주용이 덕분에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수성구에 장애인 시설은 많지만, 그들을 품는 교회가 적거든요. 담임이든 부목사든 장애인 사역을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용이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도 가족으로서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일교회, 성덕교회, 성원교회를 거쳐 지금 범어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 정리 교회보팀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헨리 나우웬, 두란노, 2024)

예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늘 귀 기울이셨고, 늘 들으셨고, 늘 그 인도함으로 사셨다.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듣는 삶이었다. 우리의 기도는 듣는 것이 되어야 하고, 행함은 그 들음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의 자세로 서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 책은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사랑의 여정에, 나의 보폭을 맞출 수 있게 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가시화되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었느냐면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다. 이것이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 중에 오신 그분은 다시 완전히 버림받는 사형 선고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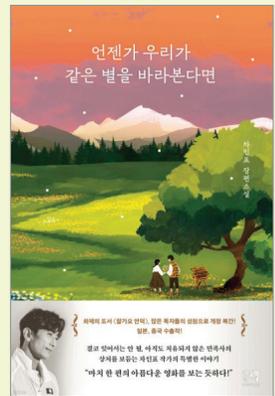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여 그 신성한 삶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中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해결책, 2021)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주제는 고발이 아니라 용서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작가는 용서에 대해 얘기한다.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이, 오랜 세월 글을 쓰며 바뀌었다고 했다. 할머니들이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 용서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순이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서 미안합니다. 평화로운 땅을 피로 물들여서 미안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짓밟아서 미안합니다. 순결한 당신의 몸을 찢고, 그 아름다운 두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한 사람들의 범죄를 널리 알리며, 죄인들을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 용서할게.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말거라.”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中



3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1. UPS 입학예배 | 3월 2일(주일) 오후4시 예루살렘채플에서 UPS 입학예배가 있었다. 제자훈련 21기, 사역훈련 20기, 지도자과정 16기 훈련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범어교회 주차장 건축 착공 감사예배 | 3월 2일(주일) 오후2시30분에 주차장 건축 착공 감사예배가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있었다.



목자모임 개강 | 3월 5일(수요일) 수요일예배 후 첫 목자모임이 예루살렘채플에서 있었다.



어머니 기도회 개강 | 3월 5일(수요일) 오전 10시 갈릴리채플에서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가 있었다.



모세대학 개강 | 3월 6일(목요일) 오전 10시, 갈릴리채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모세대학 개강 예배를 드렸다.

경동초등학교 입학 및 개학 축하 나눔행사 | 3월 6일(목요일) 오전 11시에 국내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경동초등학교 입학 및 개학 축하 나눔행사'를 교회 앞 계단 등에서 진행했다.



안수집사회 수련회 | 3월 15일(토요일) 팔공산 평산아카데미에서 '안수집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이지훈 목사님(Q.T 특강)과 윤영희 집사님(주제: 월버포스)을 강사로 안수집사회 수련회가 있었다.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 3월 9일(주일) 오후예배 후 청년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상반기 '자랑스런 범어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목회자 신학, 대내 신학, 비전 장학의 3개 부문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습니다.

잠언 기자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처럼, 백발의 아름다움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한 달 동안 예배당 곳곳에 흘렸던 말,말,말...

“우리는 깨어지기를 너무도 싫어한다. 그러나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

수요예배 설교 중

“우리의 기도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어머尼日도회 중

“육신도 지치고 맘도 지친 제게 오아시스 같은 사랑방 만남의 시간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방(여) 모임 중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한다”

전도폭발 중

“나의 말을 점검해 보자. 내 말을 통해 그가 살아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일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축하

- 황혜연 성도(황동하 장로, 권정애 권사 장녀) : 성균관대 의학박사 학위취득
- 김성은 성도 : 경북대 문학박사 학위취득

■ 출산

- 안소윤B 집사(박해원 성도) 득녀 : 3월 10일
- 류승은 성도(엄다운 성도) 득녀 : 3월 20일
- 최다솜 성도(안창건 성도) 득남 ; 3월 25일
- 박혜선 집사(이준호 집사) 득남 : 3월 26일

■ 결혼

- 이은화 권사의 장남 김태현 군 : 3월 8일(토) 오전11시, 호텔 아리아나

■ 공연

- 미드바 콰이어 콘서트 ‘아름다운 노래’ : 3월 16일 오후6시, 수성아트피아 대공연장 (전민주 사모, 강미예, 서영은, 안병규, 정은주B, 권영민, 권영윤)
- 독창회 : 테너 김명규, 3월 30일 오후5시, 수성아트피아 소극장

4월 교회 행사 안내

- 5일(토) : 세례, 입교 문답식
- 6일(주일) : 성례주일 / 양육학교 개강
- 13일(주일) : 종려주일 / 성찬식(1~4부)
예사모 주관예배(오후)
- 14일(월)~18일(금)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18일(금) : 부활절 칸타타
- 20일(주일) : 부활주일 / 부활절 연합예배(오후)
- 27일(주일) : 정기당회 / 남녀전도회 주관예배(오후)

4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12일(토) : 중등부 교사 야유회
(월류봉 돌레길 / 총북 영동)
- 13일(주일) : 고등부 성찬식
- 20일(주일) : 12:10~13:20 중등부 전도 축제
- 27일(주일) : 10:00~13:50 소년부 봄 운동회
(경동 초등학교 강당)

편집장 | 허윤정

부편집장 | 이영선C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조성희A, 이창권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025 범어교회
전교인수련회

이름나운 증명

우 리 는 범 어 교 회 입 니 다

2025. 5. 4^{주일} ~ 6^화 /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횡성

SPEAKER
강사

• 이지훈
담임목사

• 박신일
목사

• 이성미
권사

• 진태현
박시은 집사